

보도해명자료 (’18.7.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최대전력수요, 정부당초 예측 빗나가...“원전 2기
추가가동 (7.20, 동아일보)

1. 기사내용

- ①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수급계획상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벌써 뛰어 넘음
- ② 8차 전력수급계획상 수요예측이 벌써 틀린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전망했기 때문임
- ③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설비계획을 위한 장기계획으로, 단기 예측치가 어긋났다는 기사내용은 장기계획의 목적과 성격을 오인한 것에서 기인
 - 장기수급계획상 전력수요는 효율적인 전력설비 계획 수립을 위해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

- 만약, 장기수급계획 수립시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됨
- 다만, 예기치 못한 수요증가 대비를 위해 적정예비율 22% 내 미래 불확실대응 예비율(9%)을 포함해 반영하고 있음

- ②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-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은 7차 수급계획과 동일한 전망모형과 동일한 기관(KDI)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 결과임

- ③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기사내용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오해와 전력수급 관리의 기본적 운용방식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

-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은 친환경 전원믹스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가동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, 동하게 전력수급에 원전이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

- 또한, 전력수급 안정의 기본원칙은 동하게 피크 시기前 원전을 비롯한 발전기 정비를 최대한 마치고 모든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임

- 원전 가동이 늘어난 것은 그간 정비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정비기간이 연장되었던 원전들이 하계수급기간에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되었기 때문임

- 이를 전력수요가 증가하니 마치 정부가 일부러 원전을 추가 가동하여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오도하는 것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권용균 사무관(044-203-5254)